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30분 7시
오전 (2부) 7시30분 7시30분
오전 (3부) 10시
오전 (4부) 12시
금요일예배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4년 6월 22일 (제747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요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칼럼

중독은 중독으로 고쳐라

독물이 체내에서 작용하여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일컬어 '중독'이라 한다. 그러나 현대는 독물에 의한 중독도 많지만, 그보다 정신적인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적인 중독이 더욱 심각하다. '중독(中毒)', 이 뜻을 보면 가운데 중(中), 마음 중(中)에 해로운 독(毒), 즉 일독(一毒)을 쓴다. 곧 마음과 가슴 가운데 해로운 독이 들어가서 육체와 정신을 죽이는 것이 중독이다. 약물중독, 술중독, 마약중독, 게임중독, 도박중독...

나는 중독은 중독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이아몬드는 다른 것으로 절단하지 못한다. 오직 다이아몬드로만 절단이나 세공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보석 중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중독은 강력하다. 그래서 오직 중독만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나를 예로 들어보겠다.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 중독된 사람이었다. 흡세, 돈, 쾌락, 술에 중독되었었다.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나 예수에게 중독이 되니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의 일만 하고, 예수만을 위해 살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사나 죽으나 예수만을 위해 산 것은, 그 역시 예수로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중독은 방향만 틀어주면 '열심'이 된다. 고로 중독을 끊게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쪽지를 돌려 좋은 것으로 중독되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 취한 자는 하나님께로 중독되도록 하면 된다. 게임 대신 스포츠에, 술 대신 건전한 취미활동에... 이렇게 될 때 영·혼·육을 망치는 중독에서 고침을 받을 것이다. 열은 열로 다스리는 이열치열(以熱治熱)의 방법이 이와 같지 않을까!

영·혼·육의 중독자가 곁에 있는가? 포기하지 말고, 그에게 좋은 중독이 걸리도록 유도하라. 반드시 나쁜 중독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왜 하나님 형편 봐주려 하는가?

일본 동경 집회를 마치고 귀국한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일본 지바 교회의 김경숙 목사가 한국을 찾았다. 그녀가 우리를 뒤따라오다시피 한국을 찾은 이유는 일본에서 구두로 협의했던 일들을 즉시 실행하고자 함이었다.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나 집회 영상에 일본이 통역을 더방하여 전도에 활용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동안 해야 한다는 마음들은 있었지만, 실행되지 못한 까닭은 바로 추진 주체가 없었기 때문인데, 김목사가 적극적으로 배워서라도 해보겠다는 자세로 나오니 간단히 해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겪게 되는 어

숙한 사람들이 5,000여 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보통 획기적인 사건이 아니다. 더구나 일본에는 기독교 인터넷 방송이 없다 하니 우리가 1호 인터넷방송을 개국하고 그 방송을 통하여 일본 전역을 선교하는 역사를 이루어보자. 이 방송은 영역을 넓혀서 신자든 불신자든 접속해 들어와 볼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기에는 내 설교만 나가서는 안 된다. 세계 각국의 유명 설교자들의 설교도 링크해서 볼 수 있어야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당장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실행해

일본 선교의 대역사를 이루어보자고 노력해왔다.

일본은 비행기로 2시간 거리다. 차로기도인 가는 시간보다 가깝다. 그러나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죽음도 불사하고 뛰어드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열정은 강력한 자성을 만든다. 따라서 그냥 그 자성에 끌려가는 것이다. 우리가 목사님의 강력한 자성에 끌려왔던 것처럼, 목사님이 베네수엘라 루이스 목사의 '국가를 건져달라'는 강력한 자성에 끌려갔던 것처럼, 이현숙 선교사의 자성에 끌려 지구 반대편을 10년 넘게 끌려갔던 것처럼 말이다. 일본 선교에 이 한 목숨 던지라라는 한 사람의 불갈



동역관 김경숙 목사와 함께 일본 동경 세미나에서 열강하시는 목사님

려움은 일본인들의 지독한 개인주의적 성향이라고 한다.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싫어한다. 타인에게 간섭하고 강요하는 위압스러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해야 한다. 이게 꼭 일본인의 성향이 라기보다는 현대인의 속성이 그렇다. 간섭하고 강요하는 거 싫어하는 속성은 문명이 발전한 나라 사람들의 공통점인 듯 싶다. 해서 말로 백번 전도하는 것보다 성령이 역사하는 목사님의 집회영상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란 판단 아래 일본어 더방을 실행코자 한 것인데, 목사님은 한국을 찾아온 김경숙 목사에게 더 큰 비전을 밝혀줬다.

"나는 이번 일본 방문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보았다. 100명 모이는 교회를 찾으면 일본에서 인터넷으로 내 설교에 접

간다면, 반드시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꿈을 가지고 한번 일본을 변화시켜보자. 너는 남미의 이현숙 선교사처럼, 우크라이나의 슬라바 목사처럼 될 수 있다. 건강관리 잘 하면서 이러한 꿈을 차근차근 실행해보자. 일본은 가깝다. 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 일이 녹록치 않다. 50명, 100명이라도 좋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가서 성경을 찾아가며 제자를 만들겠다. 그런 노력들이 모아진다면, 일본 또한 대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집회에 인터넷 방송을 담당했던 아소 목사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라. 이 계획을 그와 함께 더 심도 있게 발전시켜보자."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당장 아소 목사와 전화 연결하여 정식으로 초청하고, 함께

은 열정이 있다면, 목사님은 또 그 강력한 자성에 이끌려 일본을 부지런히 다니시게 될 것이다. 이번 일본 집회도 김경숙 목사 한 사람의 그런 열정이 있었기에 8년 만에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결과까지 책임지려는 생각 때문인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목사님 말씀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 형편 봐주려 하는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두려워 말고 꿈꾸고 기도하는 것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있는 책임자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열정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파라과이 집회

일시: 7월 7일(월)~ 19일(토) 장소: 엔까르나سیون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25:14~30)

게으름은 악이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집을 짓기에 알맞은 장소’라고 했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부지런한 사람은 만물을 황금으로 만들고, 무형의 시간까지도 황금으로 변화시킨다. 일하는 농부는 앉아있는 신사보다 존귀하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잠10:4),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잠12:24), “게으른 자는 그 집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잠12:27),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니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잠13:4),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22:29)...

그렇습니다.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차이는 이렇듯 엄청난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육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으뜸은 바로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에게 기자가 “성공의 비결이 뭐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글쎄요, 내가 남들보다 공부할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굳이 말한다면 나는 매일 네 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것 외에 내세를 다른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대 신화를 쓴 정주영 회장, 그는 쌀가게 시절부터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나이다”(시119:148). 사도 바울의 사역도 기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지런함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살전2:9).

“아휴,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아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앓고 거두지도 앓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

지 않습니까? 그 러 니 부



지런
떨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

는 분들, 성경구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나무에 가만히 앉아 있는 새를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하는 새를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돈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마25:16)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마25:17)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둘 다 즉시 부지런히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뒀습니다. 게으름 파운 거지요. 그리고는 주인이 와서 회계하자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으리라”(마25:26-30)고 했습니다.

웁습니다. ‘게으름=악’입니다. 악이 뭐니까? 남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게으름이 악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잠10:26). 게으른 직원, 게으른 남편과 아내, 게으른 주의 종... 다 삼사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해를 끼칠 뿐이니 악이란 것입니다.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아내 상(像)은 부지런한 여인이라 말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잘 간수함은 물론이고, 외부활동까지도 능동적으로 잘 하는 여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내요, 엄마가 게으르면 가장 풀이나 애들

풀이나 집안 풀이 엉망이 됩니다. 남편이

이게으르면 가장 풀이나 애들 풀이나 집안 풀이 엉망이 됩니다. 남편이

게으르다면 그 집안 살림 절대 못 됩니다.

성경은 주의 종들도 부지런하라고 하십니다. “네 양떼의 행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잠27:23). 주의 종들뿐 아니라 성도들도 그래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롬12:11~13).

그렇다면 나는 게으른 사람인지 아닌지 생각해봅시다. 그 잣대가 성경에 있습니다. 잠자는 것을 좋아하고(잠6:9),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잠12:27), 식사마저 일로 생각합니까(잠19:24)? 헛된 정욕만 강하고(잠21:25), 핑계가 많으며(잠22:13), 편편을 일삼고 있습니까(딤후5:13)? 그렇다면 당신은 게으른 자입니다. 그런 당신의 내일의 모습은 가난하게 되고(잠10:4),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잠10:26), 남의 부림을 당할 것이고(잠12:24), 어려움이 많을 것이며(잠15:19), 구걸해도 얻지 못할 것(잠20:4)

이고, 패가망신을 할 것이며(잠18:9), 굶주릴 것이고(잠19:15), 쇠뿔만 뿔뿔러(전10:18),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마25:26~30). 당신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갈6:7)고 하셨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부지런은 가장 큰 재산이다

거둔다(고후9:6)고 하셨습니다. 이걸 농사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공부에 게으르면, 노력하지 않으면 적게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원에 고구마를 왜 심었는지 아십니까? 가을에 성도들과 함께 먹으려는 이유도 있지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을 묵도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가을 되면 얼마나 많은 고구마를 거두게 되는지를.

그러나 당신이 부지런하여 많이 심으면 어찌 되는지도 볼까요? 부자가 되고(잠10:4), 사람을 다스리게 되며(잠12:24), 마음의 풍족함을 얻고(잠13:4),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히6:11). 우크라이나의 슬라바 목사의 동생이 너른 땅이 있는데 놀리고 있기에, 제가 거기에 양파를 심으라고 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거기에 양파를 심었는데,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몇 년 사이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4~15절에는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와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는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사화복이 어렵지 않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해지면 복이 온다는 말입니다.

죽으면 썩을 몸입니다. 그런데 매일 침상에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거리고 있을 겁니까? 그리고는 입만 살아서 ‘밖에 사자가 있어서’(잠22:13) 하며 핑계대며 될 겁니까? 밭천이 없습니까? 배움이 없습니까? 부지런함이 큰 자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전하면 분명히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게으른 자여 가미에게 근면을 배워라

나 해가 빨리 뜨지 않는다고 역정 났으며, 7시면 회사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도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등하는 가운데서도 새벽에 일어나 모리아 산을 찾았고, 야곱 역시 외삼촌 집에 가서 일할 때는 불일 겨를도 없이 일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물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창31:40). 엘리야도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했음을 시인했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삼하오니”(왕상19:10), 엘리사도 부름을 받을 때에 부지런히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저가 열두 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왕상19:19). 다했 역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칼럼::

올빼미와 까마귀

서양에서는 지혜의 상징이라 대접받던 올빼미, 그러나 동양에서는 오히려 불길한 새라 하여 천대했다. 올빼미가 울면 마을에 전염병이 돌거나 국가에 전장이나 흉년이 발생한다고 믿었던 탓이다. 심지어 올빼미는 제 어미를 잡아먹는 패륜을 상징하는 새로 여겼다. 제 낳은 어미를 잡아먹는 불효막심한 새라는 이유로 올빼미는 갖은 수난을 겪어야 했다. 눈에 띄이는 족족 잡혀 죽었을 뿐 아니라 머리가 잘려 높은 나무에 걸리는 수모를 겪어야 했던 것이다. 올빼미 효(孝)자가 나무 위에 새가 걸려있는 형상인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근거 없는 낭설일 뿐이니 올빼미 입장에서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단 올빼미뿐이라? 자주 깜빡깜빡하는 이들을 일컬어 우리는 '까마귀고기를 먹었나?'며 핀잔을 주기도 한다. 까마귀고기가 기억력을 떨어뜨린다는 속담도 있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캐나다 맥길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아둔함과 건망증의 상징인 이 까마귀가 사실은 가장 머리 좋은 새라고 보고한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심리학과와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심리학과 합동 연구팀은 '뉴칼레도니아 까마귀의 경우 지능이 영장류 수준을 벗어나 5~7세 어린이와 비슷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심지어 도구를 사용할 정도로 머리가 좋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내왔던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지식과 상식들이 실상은 사실(Fact)이 아닌 경우를 확인하곤 한다. 그래, 우리가 전지전능

한 하나님은 아니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다.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귀와 눈을 닫아걸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고, 자기가 찾는 것만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갈등을 더욱 부추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일까? 북한의 위협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이권 다툼도, 세계 경제의 불황도 아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사회갈등지수의 증가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국가 중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지역과 계층, 세대와 성별 간에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또한 어마어마하다. 세월호사건과 구원과 유병언 일가의 도피문제, 그리고 거듭된 정부 인사관리의 실패로 인해 국민의 마음이 사분오열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강철은 모든 것을 부식시킬 강함을 가졌다. 하지만 녹 때문에 스스로 망가진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문제가 항상 더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하기에 더더욱 마음을 열어야 한다. 나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대에 대한 비난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내 생각, 내 입장을 내려놓고 대의(大義) 앞에 하나로 뭉칠 때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깨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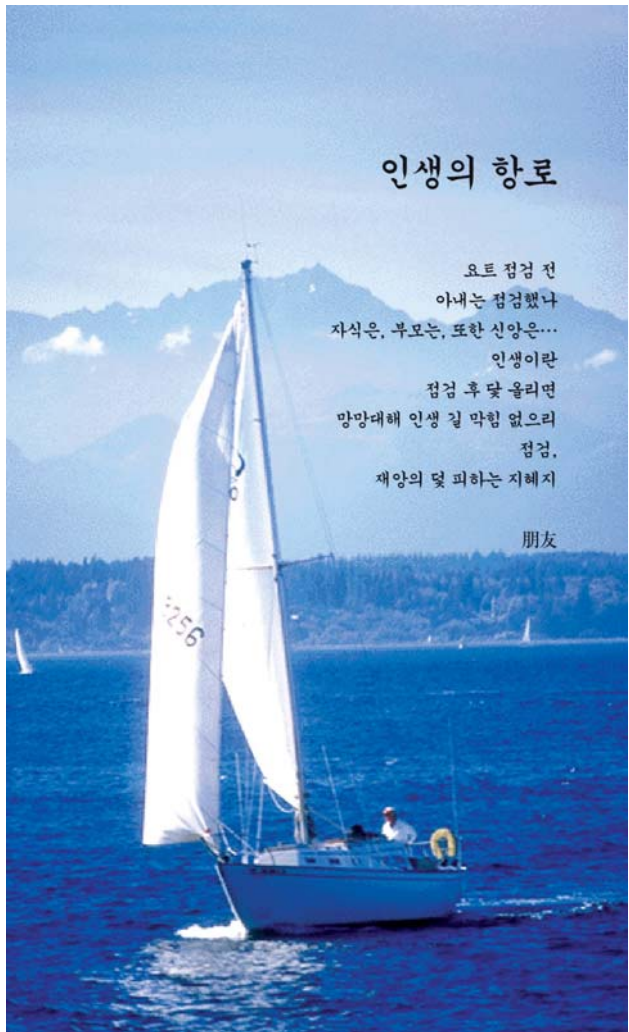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인생의 항로

요트점점 전
아내는 점점했나
자식은, 부모는, 또한 신앙은...
인생이란
점점 후 닳아 올리면
망망대해 인생 길 막힘 없으리
점점,
새앙의 닳 피하는 지혜지

朋友



::심리칼럼::



귀를 기울이세요

며칠 전 신문에 독일 베를린에서 종교 간 화합을 위한 실험을 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개신교·유대교·이슬람교가 한 지붕 아래 기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하우스 오브 원(The House of One)' 프로젝트가 그것인데요, 종교의 벽을 허무는 '하나의 집' 속엔 개신교의 교회, 유대교의 예배당인 시나고그와 이슬람교의 예배당인 모스크가 함께 자리 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각 종교의 예배당들의 중심에는 공동 공간이 들어서며, 이 공간은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개신교의 한스B 목사는 다문화·다종교 사회를 베를린의 미래로 보고 새로운 종교시설을 제안했고,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지도자들은 "유대인과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날려 버리고 서로 다른 믿음과 문화를 가진 이들이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래엔 다양성이 곧 표준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움직임이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타협해선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그리스도)라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다양성과 종교간 화합이라는 명분 아래 진리를 위협하는 세대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신학주 전도사

blessedmb@naver.com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많은 업무가 주어졌을 때, 일에 우선순위를 매기며 일을 처리해 나간다. 예를 들어 내일이 과학시험인데 다음 주에 있을 수학시험 공부부터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비효율적이고, 적절한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슨 일에도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생활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얼마 전 주민들의 해당 자치단체의 장(長)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6.4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후보들 각자 나름대로의 공약들을 내세웠지만, 가장 화제가 된 것은 후보자들의 사생활이었다. 한 교육감 A후보의 아들은 아버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한 반면, 다른 교육감 B후보의 딸은 자신의 아버

지가 혈육인 자식들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기에 '교육감 자격이 없다'며 후보를 비난했다. 이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결국 지지율 1위였던 B후보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으며, 지지율 3위였던 A후보는 당선되었다.

왜 사람들은 B교육감 후보를 질타하였을까? 바로 일의 우선순위가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 도시의 교육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자녀교육을 먼저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과연 이 문제가 비단 B후보에게만 국한된 것일까? 나 또한 이 후보를 비난했었지만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모습들은 나에게도 있었다. 최근 나는 개인적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했지만 기도에도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전날 다투었던 언니가 자주 떠올랐기 때문이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나는 용기 내어 먼저 사과하였고, 언니와 좋게 화해하며 다시금 기도에도 집중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싸웠던 사람과 화해를 하는 것. 타인에게 상냥하고 말을 예쁘게 하기 전에 먼저 가족에게 상냥하고 예쁜 말을 하는 것. 남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기 전에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우선순위다.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 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6:33).

박선인

sunin91@naver.com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당신의 기도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Jesus maria by shin

::내가 매일 기쁘게::

::틀어보세요::

공짜는 독약이다

지난 6월 연휴에 절친한 친구와 함께 제주 여행을 떠났다. 이삼 개월에 한 번씩 제주를 찾는 나와 달리, 친구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가보는 제주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모두 선택 수밖에 없었다.

제주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우리는 맛집을 찾아 다녔다. 제주의 전통 회국수와 성계국수를 먹고, 빕떡과 오메기떡, 제주 송편을 가방에 담았다. 그리고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는 횡집으로 달려갔다. 제주에 갈 때 마다 꼭 들리는 송씨 좋고 질 좋은 회가 나오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날 따라 사장님께서 싱싱한 뱀어돔 회를 서비스로 계속 리필을 해주셨다. 곁들이 안주(스키다시)로 나오는 회초밥과 함박스테이크, 흑돼지 탕수육도 리필해주시고 튀김도 가져가서 아식으로 먹으며 더 싸주셨다. 우리의 배는 이미 부를 대로 불러있었지만, 활어 회 리필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닌지라 우겨날다시피 계속 먹어댔다. 행복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때부터 우리의

여행은 꼬이기 시작했다. 친구와 나는 번갈아가며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덥고 습한 날씨에 과식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우리는 결국 새벽녘에 응급실을 찾았다. 주사를 맞고 배탈설사약을 한 보따리씩 받은 후 아침 무렵에서야 숙소로 돌아왔다. 우리는 지친 몸인지라 처음 계획했던 여행지를 아무데도 갈 수 없었다. 그저 황금 같은 시간들을 숙소에서 보내며 때 맞춰 약을 먹는 것으로 여행을 마무리하였다.

공짜로, 덥으로 더 주신 활어 회와 곁들이 안주에 눈이 멀어 우리는 친구 같은 제주 여행을 날려버리고 만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이라 웃으며 서로 위로했지만, 생각해보면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어린 시절 읽었던 이솝 우화와 탈무드의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마구 스쳐 지나갔다. 빠다귀를 물고 가던 개가 물속에 비친 개의 빠다귀가 탐이 나서 쫓다가 자신의 배를 물에 빠트린 이야기. 호리병 속

의 열매에 눈이 멀어 손에 쥐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원숭이 이야기, 그리고 ‘공짜라면 양젖통이라도 먹는다.’는 속담이 떠오르면서 성숙하지 못했던 우리의 선택이 너무 창피하고 후회스러웠다.

생각해보면, 공짜라는 말에 눈이 멀어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마르나 편의점의 ‘1+1’, ‘2+1’ 행사가 그렇고, 특정 금액 이상을 구입하면 상품권을 준다는 백화점의 행사들도 그렇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5)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 되새겨본다. 공짜는 사람의 욕심을 자극한다. 이성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끔 한다. 그래서 공짜는 독약이다.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공짜 앞에 의연해지는 소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싶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만큰 실망도 크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때로는 무시하며 살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인생의 참된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하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Good News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범한 한 남자에게 왕이 왕궁으로 속히 들어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겁에 질린 이 남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찾아가서 함께 동행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에게는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 친구는 단호하게 자신은 함께 갈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왕궁의 입구까지의 함께 갈 수 있지만, 왕궁 안으로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망한 모습으로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평소에 별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습니

진정성의 참된 의미

::Edu Section::

을해 초였다. 어떤 영어 선생님께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인 즉, 자신은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능력이 없으니 내가 대신 맡아서 수업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거절하였다. 학생들에게 들일 나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가 너무 작게 지불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학생들이 걱정되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절에 행여나 선생님을 잘못 만난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왔다. 설명하기 힘든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일단 그 학생들을 맡아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났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아이들과 헤어져야 할 상황이 생겼다. 그들이 예전의 선생님에게 돌아가던지, 아니면 나와 계속 수업을 하던지 양당간에 선택을 해야만 했다. 아이

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물어보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다. 돌려보내자니 중단될 공부 걱정되었고, 잡자니 아이들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 같아 일체의 회유 없이 선생님을 선택할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하지만 아쉬움도 잠시, 그 다음 시간에 선택의 기로에 있던 학생들 전원이 모두 찾아왔다.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공부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웃는 아이들의 얼굴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가 그들에게 해준 전시는 일단면, 그들에게 필요한 수업을 전심을 다하여 해준 것뿐이다. 망막에 이상이 생겨서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순간에도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설명해주었고, 시험기간과 겹친 수능 날짜를 뒤로 미루고 시험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준비했었다.

어리석다 할지 몰라도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맛있는 피자를 사주는 것도, 즐거운 영화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지적 갑갑증을 해결해주는 것,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공부에 매진하는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 아이들은 나의 온 맘과 뜻을 다한 노력을 알았던 것 같다. 서로 최선을 다하며 노력했던 시간들 속에서 그 아이들과 나 사이에서 수수되었던 건 서로를 향한 진정성이었던 것이다.

인간의 내면을 울리는 것은 진심과 진정성이다. 세상의 만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진심과 진정성을 알아차린다. 상대방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하며,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진심과 진정성이 이 시대에 절실하다.

오자유

oh.free@hanmail.net

아름다운 인생들

이탈리아 영화배우 안나 마니냐가 늘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사진사 양반! 내 얼굴의 주름을 절대로 수정하지 마세요.” 사진사가 그 이유를 묻자 안나 마니냐가 대답했습니다. “그걸 없애면 평생이 걸렸거든요.”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자신의 주름까지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음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무척이나 사랑하는 어느 집사가 “저는 손이 너무 거칠고 안 예뻐서요.” 하면서 손을 등 뒤로 숨깁니다. 40년을 넘게 착한 효녀로, 든든한 며느리로, 남편에게 숨은 내조자로, 자녀에게 믿음의 어머니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교회에서는 성가대 봉사자, 교구에서는 구역장으로, 아름다운 헌신자로 살면서 그러도 굵은 손이 불품없이 거칠고 투박한 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끄럽다며 숨기는 손을 살펴서 잡으며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나거든 아무 말 하지 말고 이 손만 보여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수고했다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내 딸아.’ 하실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는 세월이 도와주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도 얼굴의 주름만큼이나 평생이 걸려 얻은 손이거든요. 산삼이나 인삼, 또 귀한 약초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 나이테만큼 그 효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결국 여러분을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고 있진 않을까요?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